

“《로마인 이야기》의 번역가로 소개하면 다른 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편하죠.”

번역가 김석희 씨는 자신의 이름 석 자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로마인 이야기》 얘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린다며 웃음 지었다. 실제로 《로마인 이야기》가 번역가로서 명성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트리나 포올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질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존 파울즈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 폴 오스터의 《뺑뺑는 타자기》 등 유명 저자의 작품들과 시오노 나나미의 다른 저서들도 번역한 베테랑 번역가다. 김 씨는 1997년에 《로마인 이야기》로 제1회 한국번역상 대상을 수상하고, 번역서 전문서평지 <미메시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번역가 3인 중 한 명으로 뽑히는 등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 받기도 하였다.



“번역을 장미밭에서 춤추기”

고통 만큼 성취감 커... 문화 전달자 자부심
철저한 자기 관리와 열정 필수

필력, 상상력, 자기 관리 결합, '좋은 번역' 탄생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면서 '선생'의 꿈을 키웠던 김석희 씨는 배운 지식을 그냥 묻어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틈틈이 번역 작업을 하다가 1979년에 처녀작인 뺑자맹 콩스탕의 《아돌프》를 내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전문 번역가의 길을 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 후 1987년에 《화산도》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번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의 작품으로 작가 이호철과 공역한 《화산도》는, 그의 고향인 제주도 4·3사건을 다룬 것으로 부담이 컸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과 애정이 들어간 책이다.

198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입상할 정도로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필력을 소유한 김 씨는, 1990년 초까지는 소설 집필과 번역 작업을 동시에 했으나, 그 이후로는 번역에만 매진하고 있다. 20년째 번역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번역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번역은 뜻만 풀어내는 독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외국어로 된 텍스트의 의미를 우리말로 읽어내는 필력이 필요하죠. 좋은 번역은 좋은 글쓰기를 토대로 번역가만의 상상력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특정한 사상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는 “번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작업에 매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올라야 하는 '등산'에 비유하기도 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코 장수(?)할 수 없는 직업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역을 즐기는 것입니다.”

'독자가 읽기 쉬운 자연스런 번역' 추구

김 씨는 예전에 “번역은 장미밭에서 춤추기 같은 고통 속의 쾌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장미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가시에 찢리는 고통이 있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희열도 크다는 뜻이다. 그는 번역 작업이 창작에의 욕구,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해 소설 쓰기의 꿈을 대리만족시켜준다고 웃음을 지었다.

김 씨는 번역가 중에서도 과작을 하기로 유명하다. 그만큼 번역물 하나 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매사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출판사와의 '약속 지키기'라고 말했다. "그 책이 그 때에 출간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은 좋은 글을 쓰는 것만큼 중요하죠."

그는 평소에 단어장을 갖고 다니면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또 책 한 권을 번역하기 위해 수십 권의 참고 자료를 읽는 것은 기본이다. 독자들이 읽기 쉽고 편하게, 번역투의 문장이 안되게 번역하는 것은 그가 중시하는 번역의 원칙들이다. 그는 "난해하고 쉽게 전달이 안 되는 문장들을 사용해 오히려 원서보다 더 어려운 번역서들도 있다"며 "번역가들이 사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텍스트에 있는 하나의 단어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가는 '언어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전과 텍스트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교양으로서 '역사' 읽기 선풍... 《로마인 이야기》

이제 김 씨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로마인 이야기》는 현재까지 14권이 나왔다. 십여 년이 넘게 동일한 저자의 작품에 매달리다 보면 지겨울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로마인 이야기》 작업이 흥미롭고 즐겁다고 했다. 번역가로서가 아니라 독자로서도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뛰어난 저자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는, "기존에 대중에게 읽히던 서양사는 주로 서양인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으로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런 서양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역사의 기술이 아니라, 고대 문명사를 현대의 시각에서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 매력이죠. 현실의 문제를 역사와 관련시켜서 조망함으로써 '다시 읽는 역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 이야기》의 선풍이 전후 일본인들의 영웅

부재 의식, 영웅에 대한 갈망을 대리충족시켜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당대의 독자들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본 것이고 그만큼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의 안목과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로마인 이야기》는 '교양으로서의 역사책 읽기' 돌풍을 일으키며 최대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출간 초기에는 전공자가 아닌 저자에 대한 역사학계의 무시와 함께 역사를 왜곡했다는 반발이 있었고, 일본 우익 제국주의에 편승한 작품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일반인 뿐 아니라 중고생들에게까지 널리 읽히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그에게 "문화 전달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준 작품이다.

후기 쓰는데 며칠... '저자와 원서에 대한 예의'

그는 매번 책을 번역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 꼼꼼한 역자 후기를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후기를 쓰는데 며칠씩 걸린 적도 있어요. 후기는 역자 나름의 독후감이죠. 저자와 원서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충실한 작가 소개와 의미를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역자 후기들은 《북마니아를 위한 에필로그 60》(한길사)이라는 책으로 묶여 눈 밝은 독자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번역은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면 세상을 표현하는 개념과 언어도 바뀌어야 하고, 따라서 새로운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번역서들을 새롭게 번역해 재발간하는 최근의 풍토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전집류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기획과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번역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실에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번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 외적인 문화적 수준의 문제"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은 문화에 대해 이중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순수문학이 침체되어 있고 독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문학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을 폄하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문화적 수준의 문제죠. 이중적 잣대로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해야 열악한 번역 문화와 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_ 김지희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